DBpia

한국어 의외성 표지 -다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mirative markers -tani

저자
(Authors)

진관초
Chen, Kuan Chao

출처
(Source)

한국어 의미학 54, 2016.12, 91-126(36 pages)
Korean Semantics 54, 2016.12, 91-126(3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의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Semant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97901

APA Style

진관초 (2016). 한국어 의외성 표지 -다니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91-126

이용정보
(Accessed)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140.119.***.89
2020/03/19 12: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어 의미학 54, 91-126 (2016. 12. 30.) http://dx.doi.org/10.19033/sks.2016.12.54.91

한국어 의외성 표지 '-다니'에 대한 연구*

진관초
(연세대학교)

Chen, Kuan Chao. 2016. A study on Korean mirative markers '-tani'. *Korean Semantics*, *5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at the Korean fused final ending of quotations -tani is the mirative marker in Korean from the perspective of mirativity. First of all, the concept and the definition of mirativity are introduced and the category of mirativity is explored. The value of mirativity includes not only new information but also other values such as surprise. The range of mirativity is considered to be a prototype composed of many semantic features. The study analyzes the mirative features of -tani from 5 aspects. First, underspecified evidential is applied. Second, in terms of the co-occurrence of evidential markers, -tani can co-occur with direct evidential markers but it cannot co-occur with inferential evidential markers. Third, through the test of adverbials and discourse markers, it is observed that -tani is close to mirative prototypes or typical examples. Fourth, the usage of rhetorical questions of mirative markers is indicated. Fifth, the grammaticalization path of mirative markers and reported evidential makers is discussed.

핵심어: 의외성(mirativity), 의외성 표지(miratives), 융합형 종결어미(fused final ending), -다니(tani), 증거성(evidentiality), 언어유형론(linguistic typology)

---

* 이 글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어문학과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2016.06.25.)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발표 현장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 및 본고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1. 서론

본고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주인 의외성(mirativity)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어 인용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가 지닌 의외성의 유형론적인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다니'가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임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그 동안 '-다니'에 대한 연구는 종결어미 체계 또는 인용 어미에 관련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니'에 대해서는 형태적으로 '-다', '-니'로 분석되어 다시 '-다고 하-'로 환원되는지의 여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연구자 사이에 합의된 바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니'를 용법에 따라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표 1> '-다니'의 용법 분류에 관련된 선행연구

<table>
<tr><th colspan="5">이필영(1993)</th></tr>
<tr><th>-다니1(환원적)</th><th colspan="4">-다니2(비환원적)</th></tr>
<tr><td rowspan="3">1. 시제, 서법 선어말어미와 연결가능.
2. '-다-'를 '-대-'로 교체 가능.
3. 인용절 종결형은 평서·의문·명령·청유형을 취함. '-다고 하-'의 단축형.
4. 반사적 반문에 쓰여 문말억양 올림(수사의문문).
5. 연결형으로 쓰일 때 '-다고 하니'로 환원될 수 있음.
6.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td><td colspan="4">1. 시제나 서법의 선어말어미 연결되지 않음.
2. '-대-'형으로 교체 불가. 종결형은 평서형으로만 취함. '하-'의 탈락형.
3. 선행발화 내용의 사태에 대한 반응(화자의 인식을 나타냄.)</td></tr>
<tr><td colspan="2">-다니2-1</td><td colspan="2">-다니2-2</td></tr>
<tr><td colspan="2">1. 억양: 높음
2.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지 않음. 반사적 의문, 수사 의문문, [+선행발화 전제]</td><td colspan="2">1. 억양: 낮음(혼잣말).
2. '요'와 통합 불가.
3.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임. 평서문임. [±선행발화전제]</td></tr>
<tr><th colspan="5">김수태(2005)</th></tr>
<tr><th colspan="2">-다니1(연결)</th><th colspan="3">-다니2(종결)</th></tr>
<tr><th>-다니1-1</th><th>-다니1-2</th><th>-다니2-1</th><th>-다니2-2</th><th>-다니2-3</th></tr>
<tr><td>연결융합형</td><td>'-고 하-'생략형</td><td>'-고 하-'생략</td><td>융합형</td><td>'-고 하-', 후행절생략</td></tr>
</table>

1) <표 1>에서 '-다니'의 어깨번호는 해당 연구자를 따르지 않고 필자가 표기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 중에는 '-다니'의 제 용법에 대해 어깨번호를 사용하여 구분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중에는 동음이의어로 보이는 용법에 대해서만 어깨번호로 구분하고, 다의어의 용법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다니'의 제 용법을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해 분류 상으로는 해당 연구자를 따르되 어깨번호를 필요에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1. -다니, -자니만 실현. 2. 선행발화전제가 되지 않음. 3. '-겠-', '-더-'와 통합 제약 4. 확정적 사실에 대한 (1)화자의 느낌, 반응; (2) 결과에 따른 일.	1. '-다'와 '-니'사이에 '하-'가 생략된 것으로 선어말어미 실현 가능.	1. 억양: 올림 2. '-고 하-'를 복원가능.	1. 억양: 올림. 2. '-고 하-' 복원불가. 3. 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 4. '요'와 통합가능. 5. 선행발화전제 6. 발화시공간 바꿈제약. 7. 뜻밖임 발화.	1. 억양: 내림. 2. '-고 하-'복원불가. 2. '-더-', '-겠-'과 통합 제약 3. '요'와 통합불가. 4. 연결어미 '-다니1-2'의 종결어미화.

한길(2004)

-는다니(복합형 종결)	-다니(복합형 종결)
1. '-는다고 하니'로 회복될 수 없음. 2. 동사어간 뒤에서 '-는다니/ㄴ다니'로 실현. 3. '요'와 통합 불가(아주낮춤). 4. 어떤 시제요소와도 통합불가. 5. 억양: 항상 올림. 6. 주어인칭제약: 없음. 7. 의미적 특성: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내용에 대해 놀람, 못마땅함의 태도를 갖고 아주낮춤으로 물음. 8. 화용적 특성: 상관적 장면에서만 쓰임.	1. '-다고 하니'가 축약된 형태. 2. 동사 어간에 뒤에 '-다니'가 직접 연결. 3. '요'와 통합 가능(반말). 4. 억양: 올림 또는 끌음. 5. 억양이 '끌음'일 때 후행절이 생략된 연결어미 (유사 종결어미)로 됨. 6. 주어인칭제약: '-다니', '-냐니'는 없음; '-자니'는 1인칭 복수; '-으라니'는 1인칭. 7. 의미적 특성: 앞선 발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반말로 되짚어 물음. 8. 화용적 특성: ⑴상관적 장면에서나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가능. ⑵강한 부정적 서술. ⑶청자를 안 높이는 상황에서 쓰임.

허경행(2010)

-다니1(연결)		-다니2(종결)	
'-는다고 하다니' 축약형	'는다(종결)+니(연결)'의 복합형	'-는다고 하니' 축약형	'-는다(종결)+니(종결)'의 복합형
1. '-는다고 하다니'로 환원가능 2. 후행절의 판단근거를 나타냄.	1. '-는다고 하다니'로 환원불가. 2. 놀람, 분개함, 감탄을 나타냄.	1. '-는다고 하니'로 환원가능. 2. 청자에게 질문함.	1. '-는다고 하니'로 환원 불가. 2. 놀람, 못마땅함을 나타냄. 수사의문문 3. 주어인칭제약 없음.

박나리(2013)

	-다니1		-다니2
	-다니1-1	-다니1-2	
형태통사	1. '-다고 하니'로 환원불가. 2. '대니'로 발음가능. 3. 억양: 급상승 4. [±시제서법소](어간에 직접 연결 허용), [±선행발화 개념화]	1. 억양: 하강조, 2. [-시제서법소](어떤 선어말어미와도 통합불가), [+선행발화에 대한 개념화]	1. '요'가 통합 불가(불평화행). 2. 억양: 상승 3. [+시제서법소](필수적 실현) 4. 불평화행에서는 의문사와 지시사와 공기.
의미화	1. 선행요소 전제: [+선행발화 전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1. 선행요소 전제: [+선행발화 전제] 또는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1. 선행요소 전제: [+선행발화전제] 또는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용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 단순반복] 2.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전제], 단, 선행발화 전제 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 단순반복] 2. [-발화 유도 가능성](혼잣말),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전제](직시소 사용), 단, 선행발화 전제 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 단순반복] 2. [±발화 유도 가능성](수사의문문),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의 용법은 적게는 두 개, 많게는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다. '-다니'에 대한 분류 기준, 또는 쟁점으로는 ①'-고 하-'로의 회복가능성, ②올림조 또는 내림조가 얹힌 문말 억양, ③시제양태소와의 결합 여부, ④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 여부, ⑤청자높임의 '요'와 통합 여부, ⑥'-다니'에서 '-니'의 성격, ⑦상위문(주절)의 복원가능성, ⑧선행발화 전제 여부 등이 있음을 보인다.[2)]

이밖에 이종희(2004)는 문장종결법, 상대높임법, 사용의미의 세 가지 기준으로 종결어미를 분류하였는데, '-다니'는 문장종결법으로 '의문법', 상대높임법으로 '해체', 사용의미로 [확인]이라는 인지 의미 외에도 화자가 명제 내용이 의외롭거나 놀람을 나타내거나 [불만족]의 표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채숙희(2015)에서는 한국어 전달 증거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다니'를 놀람, 감탄, 분개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다니1'과 청자의 발화에 대한 확인 질문에 사용되는 '-다니2'로 구분함으로써 '-다니2'를 한국어 전달 증거성 표지의 목록에 넣었다.

'-다니'가 형태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의사소통 기능에 초점을 둔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강현화・황미연(2009)는 인용표현과 불평화행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간접비난]에 쓰인 '-다니'는 [반문]과 [자기 부정]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나리(2015)는 박나리(2013)에 기초하여 '-다니'와 유사표현들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림으로써 '-다니'의 변별적 문법 기술을 제안하였다.

2) '-다니'의 여러 용법 중에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단순 인용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으며, 양자를 아우르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 논의 상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 본고에서는 의외성을 나타내는 '-다니'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다니'의 용법 분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위의 '-다니'에 관한 연구는 의외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니'가 의외성 표지가 될 만한 자질을 보여주었다. 본격적으로 의외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다니'가 의외성의 기본 속성으로 파악된 [신정보]를 표현하는 문장을 잠시 살펴보자.

(1) 가. 쟤가 미국에 간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있다니.
나. 세상에, 대만에도 눈이 오다니!
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니.
라. *내가 일부러 양말을 뒤집어 신었다니.

예문(1)은 '-다니'가 사용된 예인데 (1가)와 (1나)는 성립하지만 (1다)와 (1라)는 성립하지 않는다. (1가)와 (1나)는 화자가 새로이 발견하는 문맥에서 '-다니'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면, (1다)와 (1라)는 특수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고 대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다니'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서 '-다니'가 의외성의 의미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성의 관점에서 '-다니'에 접근하는 연구는 미흡한데, 이는 '-다니'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외성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우선 2장에서, 언어유형론적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외성의 개념을 규명하며 범주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3장에서는 '-다니'가 지닌 의외성의 유형론적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다니'가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 연구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2. 기본의 논의

2.1. 의외성의 개념 및 연구들

의외성은 mirativity에 대한 한국어 번역 용어로서[3], 그 개념에 대해서는

3) 'mirativity'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김경애(2002)는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Akatsuka(1985)에서 처음으로 간략하게 소개됐으나, DeLancey(1997)에 이르러 독자적인 범주로 다루어진 후에야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의외성이 언어유형론학계에 도입된 지는 20년 남짓이며 비교적 최근에 다루어지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범주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DeLancey (2012:533~534)에서는 의외성을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mirativity)과 문법 범주로서의 의외성 표지(mirative, 이하 '의외성 표지')로 구별하여 재규명하려고 하였다. 전자는 언어 표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새롭거나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라는 의미 범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후자는 이 의미 범주가 실현된 언어 표현들이 문법 범주로서 행동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의미 범주의 의외성에 대해 DeLancey는 Donabédian(2001)의 '전형적인 발화'(typical utterance)라는 개념에 의존하여 설명하였다. 전형적인 발화란 "발화 이전에 이미 획득하여 화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명제적 내용"을 말하며, 이는 "구정보로서 화자의 지식 체계에 이미 내면화되거나 내용과 진리치가 이미 확립되었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으로 의사소통되는 것"이다(Donabédian 2001:430~431). 의외성 표지는 관련된 명제가 이러한 전형적인 발화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이다. 의외성 표지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Dickinson(2000)과 맥을 같이한다. Dickinson(2000:379)은 의외성 개념이 아래의 두 가지 해석(construal)을[4]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2) 가. 화자가 가진 유사한 상황에 대한 과거의 경험 또는 그의 보편적 지식.
나. 사태 또는 상태에 대한 화자의 즉각적인 경험.

Dickinson(2000:379)은 (2가)와 (2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태 또

'사실적 신정보', 정인아(2010: 117)는 '미예측 신정보성'이라고 명명했고, 홍택규(2008:165)는 '의심・놀람 증거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박재연(2009)은 '새 정보에 대한 놀람'으로 지칭했으나 박재연(2013)에서는 '내면화'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였다. '박진호(2011:7)에서는 간결성 및 최근 언어학계의 관행에 따라 처음으로 '의외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의외성이라는 용어는 한국어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경숙(2012), 송재목(2015), 조용준(2016) 등에서도 모두 의외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논의하였다.

4) 여기서 말하는 해석(construal)은 인지언어학에서의 용어로 "하나의 대상이나 실체, 상황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파악해서 표현하는 개념화자의 선택적 인지 전략"을 가리키는 것(임지룡 2016:288 재인용)으로 이해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는 상태를 부호화하는 명제가 '특수한 표시(special marking)'를 안내한다고 하였다. 이 특수한 표시는 의외성 표지로써 유표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우리는 의외성 표지를 '비전형적인 발화를 위한 유표적인 실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미 범주로서의 의외성은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지만, 문제는 언어마다 실현된 개별적인 의외성 표지의 구분이 다르며, 더불어 그 구분들이 해당 언어의 문법과 통합되는 범위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에 있다.5) 이와 같이 언어 간 변이로 인한 변수가 다양하므로 의외성의 외연이 어디까지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표 2> 의외성 속성 값에 대한 제 견해

	신정보 (new information)	뜻밖임, 비예측성 (unexpectedness)	놀라움 (surprise)	준비되지 않은 마음 (unprepared mind)	갑작스러운 발견, 인식 (sudden discovery)	어긋난 기대 (counter-expectation)
DeLancey (1997)	○		○			
DeLancey (2001, 2012)	○	○				
Aikhenvald (2004)	○	○	○	○		
Aikhenvald (2012)	○	○	○	○	○	○
Peterson (2010)	○		○			
DeHaan (2012)		○	○			
Hengeveld & Olbertz(2012)	○	○	○			

<표 2>와 같이 의외성 정의에 따른 속성 값은 연구자마다 각각 다르게 제

5) 언어마다 의외성을 표현하는 나름의 범주와 수단이 있다. 가령 시상, 서법, 증거성, 그리고 인칭 표지의 문법 범주 또는 관용구, 어휘화된 부사 표현 등 어휘적 수단으로 의외성을 나타내거나 함축할 수 있다(Dickinson 2000; DeLancey 2012; Aikhenvald 2012; Peterson 2013). Peterson(2013)에서는 의외성을 기생적 의외성(parasitic mirativity)과 비기생적 의외성(non-parasitic mirativity)으로 구분하였다. 기생적 의외성이란 다른 문법, 의미, 그리고 언어 범주에 기생하는 의외성이며, 비기생적 의외성이란 다른 문법, 의미 범주와 독립적으로 부호화되는 의외성으로 정의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시했으며, 동일한 연구자에 의한 연구임에도 연구시기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신정보', '뜻밖임', '놀라움'은 의외성의 속성 값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의외성의 기본 속성 중의 하나인 신정보가 범언어적으로 증거성 표지에 의해 실현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보고되면서, 의외성과 증거성, 의외성과 양태의 범주적 관계에 대해 학계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의외성 범주의 독자성에 관련된 연구로는, 의외성을 하나의 독립된 문법범주로 다루는 논의(Delancy 1997, 2001, 2012; Aikhenvald 2004, 2012; Peterson 2010; 박진호 2011; Hengeveld & Olbertz 2012; 조용준 2016)와 다른 문법범주의 부수적이거나 맥락적 효과로 다루는 논의가 있다. 후자는 다시 증거성의 부수적 효과로 다루는 논의(Hill 2012; 송재목 2015), 인식 양태의 하위범주로 포함시키려는 태도(박재연 2006, 2013)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한국어 의외성에 관련된 논의들은 종결어미 '-네', '-구나'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 둘 중 '-구나'는 일찍부터 의외성 표지로 다루어졌으며, 한국어의 전형적인 의외성 표지라는 점에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해외 학자의 연구로 Delancy(1997:45~47)에서는 한국인 제자인 Lee(이효상 1985), Ko(고경희 1989)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군'을 증거성 표지와 구별되는 의외성 표지로 분석하였다. Aikhenvald(2012:457~458)에서도 한국어의 '-군'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획득된 정보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표시하므로 증거성 표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외성 영역 중 어떠한 의미를 확실히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박재연(2014)에서 '-구나'는 '사유 과정을 동반한 인식'을 기본 의미로 나타내며, 그것의 증거성이 '지각'에 있기보다는 '추론'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추론 증거성을 부호화하는 것은 '-구나'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내면화 과정'을 표현하므로 '새로 앎'[6]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

6) 여기서 '신정보'와 '새로 앎'이 동일한 개념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박재연(2006, 2013)에서 '새로 앎'으로 번역한 용어는 'unassimilated information'인 반면에, 증거성 관련 연구에서 흔히 '신정보', '새로운 정보'로 번역되는 용어는 'new information'이기 때문이다. 인식양태나 증거성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 두 용어가 혼용되어 잘 구분되지 않는다. 본고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화자가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구나'와 달리 '-네'가 나타내는 의외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을 제기하거나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 혹은 한국어의 다른 문법 표지도 의외성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trauss(2005)에서는 '-군'과 함께 '-네', '-더라'가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Kwon(권익수 2010)에서는 한국어 복합구성인 '-나 보-', '-ㄴ 모양-'이 기대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의외성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박진호(2011)에서도 '-구나', '-네'의 핵심 의미성분을 의외성으로 보고 '-더-'도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은가 보-', '-은/을 것 같-'과 같은 우언적 구성도 의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재연(2013)에서는 '의외성'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어 논의에 더 적절한 '내면화'라는 범주를 설정함으로써[7] '-더-', '-네', '-구나'가 '새로 앎'을 나타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경숙(2012)는 '-네'를 '공간직시시제(spatial deictic tense)'로 다루고 있으며, '-네'가 '의외성', '화자의 객관화'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송재목(2014, 2015)에서 '-네'는 화자가 발화시에 직접 증거를 획득했다는 '현재 직접 지식'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이며, 의외성 또는 인식양태와 같은 의미들은 증거성 의미로 인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준・하지희(2016)에서는 '-구나', '-네' 그리고 '-다'를 안높임 의외성 표지로 보고 이들에 대해 세대차 및 성차에 따른 사회언어적 변이를 실험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구나'와 '-네'의 경우는 의외성이 이들 어미의 기본 의미인 반면에, '-다'의 경우는 부수적 의미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8]

이재성(2014)는 '-구나'와 '-네'의 쓰임이 "결합된 명제에 대해 화자가 아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는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일 수 있지만, 정보 처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앎으로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쉽게 잊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경희(1985)에서는 [알다]의 핵심의미로서 [정보를 가지다]를 논의하고 있는데 '신정보'와 '새로 앎'을 동의관계로 파악한 듯하다.

7) 의외성이라는 용어의 문제에 관련하여 2.2.에서 다루기로 한다.

8) 필자는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조용준(2016)을 발견하여 읽었다. 이 논문은 의외성의 본질적 특성과 의외성의 '최근성 효과(recency effect)' 및 맥락적 의미에 대해 꼼꼼히 논의하였다. 최근성 효과란 "문장에 표현된 명제 내용이 화자에게 최근에 알려진 것이야 한다"는 제약인데, '-더-'가 표현하는 정보는 과거에 지각한 것이므로 증거성 표지가 될 수 있으나 의외성 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에 의해 구별된다고 보았다. 즉, ‘-구나’는 문장에서 표상된 명제에 대해 화자가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용되는 데 반해, ‘-네’는 해당 명제에 대해 화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쓰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재목(2015)는 ‘-네’가 전달하는 정보는 화자가 예측하지 못했다거나 화자에게 놀라운 정보가 아니므로 의외성의 표지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니’를 의외성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경애(2002:54, 57~58)는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증거성의 연속체의 한 끝으로 보았으며, ‘-다니’는 화자에게 놀랍거나 예기치 않은 정보를 나타내므로 의외성 표지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구나’는 신정보를 나타내지만, ‘-다니’에 비해 큰 놀라움이나 상반된 기대가 덜 느껴지거니와 화자가 보거나 지각한 상황을 진술하는 증거성의 속성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구나’를 입증증거표지로 파악하였다. 이는 앞에서 박재연(2014)가 다룬 ‘-구나’의 관점과 대조된다.

이렇듯 의외성의 개념이 한국어 연구에 도입된 이후, 증거성과 함께 의외성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주로 ‘-구나’와 ‘-네’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어 의외성 연구는 다소 편파성을 띠고 있으며, 의외성을 지닌 다른 문법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착안하여 본고는 ‘-다니’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나타내는 의외성을 천착해 보고자 한다.

2.2. 의외성의 범주적 문제

의외성의 문법적 표지를 갖는 언어들, 특히 의외성이 체계적인 문법범주로서 존재하는 언어들에서 의외성이라는 범주 내에 어떠한 속성 값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형론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의외성이라는 개념 공간을 분할하는 속성 값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박재연(2013)이 있다. 박재연(2013)에서는 한국어에 ‘새로 앎’과 ‘이미 앎’을 대립적으로 나타내는 어미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외성(mirativity)’보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다는 '내면화(assimilation)'라는 상위범주를 설정하고 논의하였다.

(3) 가. 갈치를 무에 넣고 조리면 맛이 있지. (장경희 1985)
나. 이런, 양말에 {*구멍 났지, 구멍 났네}. (박재연 2013:85)
다. 세상에, 여기에도 눈이 {*오지, 오네, 오는구나}.
(박재연 2006: 201에서 변형)

(4) 가. 철수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 타네}.
나. 아이고, 양말에 {*구멍 났거든, 구멍 났네}!
(박재연 2006: 237에서 변형)

박재연(2013)에 따르면 예문(3)~(4)와 같이 화자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에는 '-지', '-거든'이 쓰이고, 새로 알게 된 정보라면 '-네', '-구나'가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어에서 '새로 앎'과 '이미 앎'의 대립으로 '내면화'의 범주가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법 범주가 대립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면화' 범주의 설정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박재연(2013)은 내면화 범주를 '새로 앎'과 '이미 앎'의 대립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이 범주에서는 '새로 앎'과 '이미 앎'의 역할 비중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증거성과 내면화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내면화 범주의 '새로 앎'은 증거성 표지가 흔히 동반하는 의미이며, '흔적 지각' 또는 '뒤늦은 깨달음'은 내면화와 증거성 표지가 과거 시제소와 공기할 때 나타내는 의미라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기술하였다. '새로 앎'과 대립되는 '이미 앎'은 이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며 설정이 다소 잉여적으로 느껴진다.[9]

둘째, 위와 같은 맥락으로, 박재연(2013)에서의 내면화 범주는 해당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얼마나 정착하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103면) 이 범

9) 박재연(2013:96)에서는 내면화 범주가 증거성 범주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내면화 범주 중에 하위유형인 '이미 앎'을 나타내는 요소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문법 범주가 다른 범주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논의할 때 하위유형의 차이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의 상 의미적인 개념이 달라야 한다. 그에 따라 내면화 범주의 '새로 앎'이 증거성 범주에 의존하는 함축적 의미라면 내면화 범주가 증거성 범주와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주에 속한 모든 문법표지들에 내면화를 드러내면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문법 현상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한국어 증거성을 나타내는 문법표지가 대체로 1인칭 주어 제약을 가진다든지 두루 화자의 신정보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것처럼 내면화를 표현하는 한국어 어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만 범주적인 지위가 확보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범주의 대립 체계를 중요시하는 박재연(2013)은 화자의 '새로 앎'을 나타내는 '-더-', '-네', '-구나'가 모두 내면화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 세 표지를 위한 대립적인 하위 영역이 설정되어야만 이 범주의 체계성이 더욱 온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만약 또 '과거 지각', '현재 지각'과 같은 증거성의 대립으로 그 '새로 앎'의 하위 영역을 설정한다면 증거성 범주를 내면화의 하위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순환론에 빠지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될 것이다.

넷째, 의외성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박재연(2013)에서 의외성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한 이유는 '의외성'이 어떤 한 범주의 속성 값의 이름은 될 수 있지만 속성 값의 이름 자체가 범주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어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법 범주의 이름 용어를 살펴보면 비판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높임], [안높임]을 전제하여 성립하는 높임법 체계는 하위유형의 속성 값의 이름을 범주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부정법', '피동법', '사동법'의 경우 역시 범주의 한 속성 값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이다. 물론 문법 기술 상 '긍정-부정', '능동-피동', '주동-사동'이라는 이원적(二元的)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이는 설명을 위한 방편이지 대립되는 문법 범주의 성립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긍정', '능동', '주동'은 모두 유표적인 문법 요소가 실현되지 않는 무표적인 문장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금까지 국어학에서 의외성에 대한 연구들이 '새로 앎'이라는 속성만을 중시하여 논의하였다는 것은 다소 편협한 측면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의외성 범주에 '신정보'(또는 새로 앎)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비예측성'과 '놀라움' 등의 속성 값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Aikhenvald(2004:214)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에서는 의의성의 핵심적 의미 구성요소로 '놀라움'(surprise)과 '신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Peterson(2013:3~4)에서는 의외성의 기본 의미를 '놀라움'으로 보고, 비예측성, 신정보 등 흔히 함께 언급되는 의외성의 속성들이 '놀라움'에 수반된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첫째, 의외성에 관한 다양한 기술에서 '놀라움'은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이라는 점이다. 심리학의 입장에서 놀라움은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경멸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 감정이다.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 놀라움이라는 용어는 화자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신정보를 맞닥뜨릴 때 발생하는 단일 심리사건의 한 구실이다. 이 단일 사건은 놀라움, 뜻밖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 및 심리학적 개념에 대응되는데 이것들은 후에 개념화되어 연구자에 의해 의외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둘째, 많은 언어들이 놀라움을 기본 의미로 부호화하는 어휘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Peterson은 이 점을 의외성이 언어 범주로 지정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는 의외성의 문법적인 실현이 부정(negation), 의문문, 서법, 조건문의 전건(the antecedent of conditionals) 등 함의 취소 연산자의 통사·의미적 작용역(scope) 안에 나타날 수 있어 다른 문법적 요소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언어마다 언어 범주를 실현하는 방식이 범언어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외성 범주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영어와 기트크산어(Gitksan)가 부호화한 한정성(definiteness)과 능격성(ergativity)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한정성과 능격성의 범주적 지위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듯이, 의외성이 증거성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여 의외성 범주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의외성의 범주가 있고 없음을 따지기보다는 해당 언어에서 의외성이 얼마나, 어떻게 문법화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섯째, 2.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외성 표지가 비전형적인 발화를 위한 유표적인 실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해석'될 때, '새로 앎'과 '이미 앎'의 대립으로 구성하는 범주 자체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Delancy(1997:36)에서 '기대된', '이전의', '내면화된' 범주는 무표적인 것인데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반해 mirative라는 용어는 언어 보편적으로 유표적인 ‘비기대적인’, ‘새로운’, ‘즉각적인’ 범주를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박진호(2011:8)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의외성은 그 자체가 하위범주로서 특정 문법요소가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의외성’이라는 용어가 ‘내면화’로 명명되는 데 큰 이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mirativity에 대한 한국어 번역어를 ‘의외성’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언어유형론 학계와 소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외성 연구에서 ‘놀라움’을 비롯한 다른 속성 값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외성 범주를 신정보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면 의외성의 범주적 속성 값들에 무엇이 있는가는 의외성 범주의 정립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Aikhenvald(2012:437~438)에서는 의외성 체계에 화자나 청자 혹은 주인공(주요 인물)의 ①갑작스러운 발견, 깨달음이나 인식(sudden discovery, sudden revelation or realization), ②놀라움(surprise), ③준비되지 않은 마음(unprepared mind), ④상반된 기대(counter-expectation), ⑤신정보(new information)의 5개의 값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고는 이들 속성 값을 대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다루기보다는 여러 개의 의미적 특성들로 구성된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즉, 의외성 범주를 그 범주가 지닐 수 있는 위의 5개 의미 속성들로 구성된 하나의 원형(prototype)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령, Magar어의 의외성 표지는 ‘상반된 기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속성 값을 모두 갖고 있는 반면에, 칸토니스어의 의외성 표지는 ‘놀라움’만을 표시한다면(Aikhenvald 2012:439~400) Magar어의 의외성 표지는 원형에 가까운 구성원(example)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다니’가 나타내는 의외성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3. 의외성 표지로서의 ‘-다니’

앞에서 ‘-네’, ‘-구나’가 한국어의 의외성을 표현한다고 제시한 선행 연구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인용 융합형 어미 '-다니'를 한국어 의외성 표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장에서 '-다니'가 보이는 의외성의 언어유형론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명세화되지 않은 증거성(underspecified evidential)

우선, 의외성은 새로운 정보 또는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할 뿐, 그 이외에 해당 정보의 출처, 즉 화자가 획득한 정보가 직접인지, 간접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Watters 2002:288~300; Aikhenvald 2012:442). 또한 범언어적으로 의외성 표지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함께 두루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증거성 범주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DeLancey 2012:540). 의외성을 나타낸다는 '-네', '-구나'를 비교해 보면 '-구나'는 '지각 증거', '추론 증거'를 둘 다 표시할 수 있는 반면, '-네'는 '지각'을 통해 얻은 정보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박재연 2006; 정인아 2010). '-구나'는 정보 입수 경로를 특정 유형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보다 의외성 범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가. 이 꽃 참 {예쁘구나, 예쁘네}. (시각)
나. 너 목소리 참 {좋구나, 좋네}. (청각)
다. 이 꽃 냄새 참 {좋구나, 좋네}. (후각)
라. 국이 참 {맛있구나, 맛있네}. (미각)
마. 이 옷이 촉감이 참 {부드럽구나, 부드럽네}. (촉각) (박진호 2011:10)

(6) (영희의 빈자리를 보고)
가. 영희가 제주도에서 한다는 학회에 갔구나.
나. ??영희가 제주도에서 한다는 학회에 갔네. (박재연 2014:225)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나'와 '-네'는 직접 증거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6)에서 추론하여 알게 된 신정보를 표현할 때 '-구나'를 사용하면 그 쓰임이 자연스러운데 반해, '-네'는 어색하다. '-구나'가 나타내는 증거성을 따져보면 '추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진관초 2013; 박재연 2014), 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증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임동훈 2011; 박진호 2011). 어떤 문법 범주의 성립은 그에 속한 문법 요소들 사이에 의미론적 대립 관계를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나'는 증거성의 여러 하위범주에 걸쳐 출현하므로 진정한 증거성 표지가 될 수 없다.

문제의 대상이 되는 인용 융합형 어미 '-다니'는 '보고' 증거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도 표시 가능해 여러 증거성 범주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7) A: 나, 다음 주에 입대해.
B: 다음 주에 입대하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박나리 2013:63)
(8) A: 지선인 이민 갈 건가 봐.
B: 아니,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던 애가 유학도 아니고 이민을 가다니? 말도 안 돼. (박재연 2000:188)
(9) A: 이제 너는 재시험을 볼 기회가 없대.
B: 어떡하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 (강현화 외:2016:302)

인용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는 간접인용 구성 '-다고 하니'에서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의외, 놀라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발전했으나, 간접인용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기저에 남아 있다. (7)~(9)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달된 정보를 표시하는 데 '-다니'가 쓰였다. 보고 증거성의 핵심 의미가 다른 누군가의 발화에서 비롯된 정보를 표시한다는 점에서(채숙희 2015:79) 이때의 '-다니'는 보고 증거성 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9)에서 화자의 정보의 출처는 일차적으로는 청자의 발화이지만, 정보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문(7)과 같이 청자의 단언(assertion)일 수 있고 (8)과 (9)처럼 청자의 간접적인 추론 증거, 또는 누군가로부터 듣고 전달한 보고 증거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보고된 정보는 화자에게는 새로운 것이며, 이 신정보는 화자의 내면화된 지식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니'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니'가 보고 증거만을 표시한다면 한국어의 보고 증거성 표지로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인정될 만한 자격이 확보되기는 하나, '-다니'의 용례를 살펴보면 직접 증거를 드러내는 데서 사용되기도 하며, 간접 증거 또는 직접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 가. (밖에서 돌아와서)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춥다니?
나. 그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했는데 또 담배 피우고 있다니!
다. (신년 달력을 걸면서) 어느새 내가 서른이라니...
라. 내가 술을 10잔만 먹고 그렇게 취했다니! <작례>

(11) 찬두: 중간고사를 이렇게 잘 보다니. 나 진짜 천하대 가는 거 아냐?
현정: 이번에 열라 쉽게 냈대. 90점 이상도 되게 많구.
풀잎: 그래두 성적 잘 나오니까 기분은 좋다. 그치.
현정: 어. (웃는) ≪공부의신≫9회

화자는 예문(10가)에서 촉각, (10나)에서 청각, 미각 등의 감각적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신정보에 대한 의외성을 '-다니'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10다)에서 화자는 지각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벌써 30살이 되었다는 믿고 싶지 않은 신정보에 대한 의외성을 '-다니'에 의해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 자신에 대한 일이나 의도적인 행위는 화자에게 신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화자가 의식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성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는 '새로 앎'이 될 수 있다. 이때 소위 증거성 표지가 가지는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10라)에서 내성적(endophoric) 인식은 직접 지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의외성도 '-다니'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10)]

(11)에서 중간고사를 잘 본 것은 화자인 찬두가 직접 증거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10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화자 자신이 그렇게 취했다는 것은

10) Aikhenvald(2004:198~199, 2012:466)에서는 직접 관찰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성 표지를 취하면 화자가 놀란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례가 수많은 언어에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DeLancey(2012)에서도 Khowar어에는 추론 형태소(inferential form)가 직접 관찰한 정보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언(hearsay)과 추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새로운, 놀라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술이 깬 후에 친구의 말(보고 증거)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11] 즉, '-다니'가 표상하는 정보의 출처는 증거성의 여러 하위범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구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다니'는 보고 증거나 직접 증거를 두루 표시하지만 증거성을 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은 아니다. 오히려 '-다니'에서 의외성의 의미가 부각되는데, 그 의외성을 "발화 시점에 직접·간접 증거에 상관없이 화자가 획득한 정보가 신정보이면서 알고 있던 사실 또는 기대와 일치하지 않아 의외(뜻밖임)이거나 놀라움을 표현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3.2. 증거성 표지와의 공기 제약

선행 연구에서 다룬 '-구나', '-네'와 본고의 '-다니'가 모두 한국어 의외성 표지 후보로 인정될 때 이들 어미는 증거성 표지와 공기하는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본고에서 '-다니'가 지닌 의외성 의미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언어적으로 증거성 표지는 하나의 절(문장)에서 다른 증거성 표지와 함께 중복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Aikhenvald 2004:87-95). 의외성 범주를 가진 몇몇의 언어에서는 의외성 표지가 특히 간접 증거성 표지와 흔히 공기할 수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Aikhenvald 2012; DeLancey 2012). 한국어의 '-다니', '-구나'와 '-네'는 직접 또는 추론 증거성 표지와 함께 실현될 때 각각 다른 제약이 관찰된다. 우선, 직접 증거성 표지 '-더-'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

11) 이와 관련하여 증거성 범주를 가진 언어에서는 보고 증거성 표지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때 흔히 의외성을 나타낸다. Aikhenvald(2004:225~226)에서는 Nganasan어의 경우, 화자의 강한 아이러니, 놀라움, 말해진 것에 대해 격렬하게 동의치 않음을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Tucano어 또는 Shipibo-Konibo어에서도 화자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떠올리게 되었을 때 보고 증거성 표지와 1인칭 주어가 공기하여 표현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었다. 박재연(2013:93)에서는 "내가 꼴지래!"와 같은 간접 지식 형식이 1인칭 사태에 결합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에 '새로 앎'의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화자 자신에 대한 일이라도 새로 알게 된 것이라면 간접 지식 형식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12) *철수가 학교에 가더네.
(13) 평일인데도 영화관에 사람이 많더구나.
(14) A: 난 김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이해가 안되더라.
B: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더라니. 그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하니?
≪한국어기초사전≫

(12)~(14)에서 보듯이 '과거 지각'을 나타내는 직접 증거성 표지인 '-더-'는 '-네'와 통합할 수 없는데, '-구나'와 '-다니'(-라니)는 통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12)에서 '-더-'와 '-네'의 통합이 제약을 받는 것은, '-더-'는 어떤 사태에 대해 과거에 직접 지각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반해, '-네'는 현재 발화 시점에 직접 지각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3)에서 '-구나'는 '새로 앎'과 '추론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 주된 기능이 증거성 표시하는 것에 있지 않아 '-더-'가 지니는 '과거 지각'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자체에 '새로 앎'의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나'의 '새로 앎'이 '-더-'에 흡수되어 '-더구나'에는 '-더-'의 '과거 지각'만이 부각된다(박진호 2011:16, 박재연 2015:227~228). (14)에서 '-다니'는 '보고 증거'와 '지각 증거'를 두루 나타낼 수 있지만 '-더-'와 결합하면 '-다니'의 부수적인 기능인 '지각 증거'가 상쇄되어 '보고 증거'의 의미만 살아남게 된다. '-다니'의 의외성은 '새로 앎' 이외에 '놀람'과 '어긋난 기대'를 나타내는데, '-더-'와 결합할 때 '-더구나'와 달리 '놀람'과 '어긋난 기대'는 그대로 남아 있어 '-더-'에 더해지게 된 것이다.[12)]

---

12) '-더라니'의 이러한 쓰임이 실제 발화에서는 제한적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더라니'와 같은 형태로 많이 쓰이는 맥락은 아래와 같이 화자가 어떤 결과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예측했던 대로 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 오늘은 허리가 아프더라니, 비가 오려고 그랬구나.
오늘이 졸업식이었구나. 어쩐지 학교 입구부터 사람들이 많더라니.

(1)의 '-더라니'는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지만(≪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의하면) '-더라'의 '-더-'가 가지는 '과거지각'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후자의 '-더라니'가 화자가 지각하기 전에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 의외성과는 반대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 두 어미가 다의어인지 동음이의어인지는 분명하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다음으로, 추론 증거성 표지와의 결합 양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5) 철수가 지금 일곱 살이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가겠구나, 가겠네, *가겠다니}.
(16) 과제 때문에 다들 많이 {바쁜가보구나, 바쁜가 보네, *바쁜가 보다니}.
(17) 너 정말 외로운 {모양이구나, 모양이네, *모양이라니}. 요즘 심심하면 애완동물 찾고.

위의 예문은 의외성을 나타내는 '-구나', '-네', '-다니'가 각각 (15)에서는 '-겠-', (16)에서는 '-나 보-', (17)에서는 '-는 모양이-'와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그 결과, '-구나'와 '-네'는 추론 증거성 표지와 자연스럽게 공기하지만 '-다니'가 추론 증거성 표지와 함께 쓰이면 거의 비문이 되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구나', '-네' 그리고 본고의 '-다니'가 모두 의외성을 나타낸다면 유독 '-다니'가 추론 증거성 표지와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13] 위에서 '-더-'와 '-네'가 결합 불가한 이유가 의미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라면, '-다니'와 추론 증거성 표지의 통합 제약은 이와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화자의 반대된 기대, 지식 체계에 어긋나 나타나는 의구심, 불신과 같은 '-다니'의 의외성은 '부정'(negation)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증거성 표지는 인식과 관련된 문법 요소로서 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정의 작용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다니'의 의외성을 일으키는 즉각적, 갑작스러운 반응은 인지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추론과 동반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간접적이나마 '-구나'에는 '사유과정'이 내포되어 있어 원래 추론 증거성 표지와 쉽게 어울린다는 점, 최근 한국어 사용 양상을 보면 '-구나'의 쓰임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네'의 쓰임은 확산되고 있어 '-구나'의 사용역을 흡수해 가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추론의 환경에서 '-네'의 사용빈도는 '-구나'에 비해 많아진다는 것이다.[14]

지 않다. 사전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3) 400만 이상 어절로 구축된 한국 드라마 말뭉치에서 추출된 용례 중에서 '-다니'가 '-나 보-', '-는 모양이-'와 결합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00만 어절 규모의 ≪연세구어말뭉치≫에서도 이와 관련된 용례는 검색되지 않았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세 번째 논점은 한국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에 관련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일단 차치하고, 두 번째 논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언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함이 밝혀진 바 있다. Aikhenvald(2012:451)과 Adelaar(2013:103)에서는 께추아어(Tarma Quechua)에는 '갑작스러운 발견'(sudden discovery)을 나타내는 의외성 표지 '*-naq*'가 있는데 이는 추론 증거성 표지와 함께 결합하는 경우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는 추론과 갑작스러운 의식이 감각적으로 상반돼 서로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니'의 의외성을 갑작스러운 의식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할 때 추론과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가 '-겠-'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실제 발화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용례가 발견되었다.

(18) 민우: 우리 아버질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뿐이야.
미주: ...정말 그럴까요? 당신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력.. 한 번 잡아보죠.
민우: 그 말 무슨 뜻이야. 더 높은 권력을 잡겠다니? ≪자이언트≫54회

(19) 병희: (Na.) 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아기를 책임지겠다니.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린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걸까. ≪여우야 뭐하니≫4회

(15)와 달리 (18)과 (19)는 '-다니'와 '-겠-'이 공기하여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니'는 보고 증거성 표지로서, (18)에서와 같이 청자가 존재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문에 쓰일 수 있으며, (19)에서처럼 이전에 들은 말을 단독적 장면에서 다시 되짚으면서 혼잣말처럼 발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 (19)에서 계속 이어진 발화로 '-ㄹ 줄 몰랐다', '-ㄴ 줄 알았다' 등의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 발화를 들

14)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조용준・하지희(2016)을 참조.

15) 이필영(1993:138-142)에 의하면 '-다니'는 뜻밖의 사태에 대한 기정사실화 또는 제3자의 (예상밖의)발화에 대한 반사적 물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는 참고될 만한 지적이다. 전자의 '-다니'가 추론 증거성 표지와 결합하기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화와 추론의 비확실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었을 때부터 발화 시점까지 시공간적인 격차가 존재하면서도 '-다니'가 지니는 의외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겠-'이 '-다니'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단은 (18)과 (19)에서 '-다니'와 결합한 '-겠-'의 양태성이 담화상의 화자 지향적인 '화자가 추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의 주어를 지향하는 '주어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겠다니'는 간접 인용의 성격을 지니며, '-겠-'은 원 발화 내용에서 주어의 태도가 중화된 용법으로서 '-다니'의 부정 작용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때의 '-겠-'은 추론 증거성 표지로 보기 어려워 '-다니'와 추론 증거성 표지의 공기 제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될 수는 없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표 3> 한국어 의외성 표지 후보와 증거성 표지의 결합 양상

EVI. / MIR.	직접 증거	추론 증거		
	-더-	-겠-	-나 보-	-는 모양이-
-구나	○	○	○	○
-네	×	○	○	○
-다니	○ (가능하나 실제 쓰임이 제한됨)	×	×	×

3.3 부사어, 담화 표지와의 호응 제약

앞에서 '-다니'는 추론 증거성 표지와 공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첫 번째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사·의미적 테스트를 이용해보기

16) 의외성 표지는 논리적으로 보고 증거성 표지와 공기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국어의 경우는 '-다네', '-다는구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 대상을 보고 증거성 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니'로 삼았는데 이는 더 이상 다른 보고 증거성 표지와의 중복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보고 증거성 표지와의 공기 현상을 논외로 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로 한다.

(20) 가. 구름이 낀 걸 보니 오후에는 비가 {*오겠다니, 오겠네, 오겠구나}.
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니, 이상하네, 이상하구나}.
다. 네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니, 있네, 있구나}.
라. 그러고 보니 요즘은 통 못 {*만났다니, 만났네, 만났구나}.

(20가)에서 '-를 보니', ' -ㄴ/는 걸 보니'와 같은 표현은 추론 증거성 표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정인아 2010). 이러한 표현은 화자에게 추론 증거가 있다는 전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당한다. 이 점에서 후행절에 쓰인 '-겠-'은 '화자가 추론함'을 나타내므로 일차적으로 예문 (18)~(19)와 같은 보고 증거 구성의 쓰임이 배제된다. 명제 내용에 관해서는 청자가 동의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반면, 화자가 정보를 획득한 수단을 나타내는 증거성의 내용은 발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화자가 거기에 덧붙인 인지적 설명이므로 청자가 그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다.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의외성을 지닌 '-다니'는 그것과 의미적으로 충돌하여 (20가)에서는 쓰일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나)~(20라)에서는 선행절에 '-X 보니' 계열의 구성이 쓰인 예를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주로 새로 깨닫거나 새로운 결과를 발견했을 때 혹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쓰이는 것으로 풀이되어 왔다. 또한 (20나)~(20라)에서 '-겠-'과 같은 추론 증거성 표지와 통합되지 않아 '새로 앎'과 '어긋난 기대'를 나타내는 '-다니'는 이들 표현과 같이 공기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20나)~(20라)에서와 같이 '-다니'는 이들 표현과 같이 사용되면 대체로 비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행절에서 표현되는 명제는 '새로 앎'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화자가 사유 과정을 겪어 도출한 결과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곧 화자가 스스로 사유 과정을 통해 추론한 결과에 대해 다시 '부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X 보니'에 선행하는 동사의 동작을 수행할 때부터 화자가 새로 앎을 도출할 때까지 시공간의 폭이 있어 즉각적인 반응에 쓰이는 '-다니'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비문의 이유로 작용하였다.

위에서는 연결어미 '-(으)니'에 관련된 표현들이 지니는 접속관계의 환경에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서 '-다니'의 출현이 제한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으)면'이 이끄는 조건의 접속관계에서도 '-다니'의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21) 내일만 출근하면 3일 {쉬네, 쉬는구나, ?쉬다니}.[17]
(22) A: 보고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면 된대.
B: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네, 남았구나, *남았다니}.

(21)과 (22)에서와 같이 '-면'이 나타내는 '조건'의 접속관계에서는 '-다니'의 사용이 다소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었다. 이는 화자가 조건 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유・추론의 과정을 겪었으며, 후행절은 추론된 결과를 표상하는 것이므로 '-다니'와 상충된다고 판단된다.

송재목(2015:138~139)에서는 일반적 사실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새로 알게 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박진호(2011:10~11)의 설명을 차용하였다. 사유 과정 또는 추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는 화자의 내면화된 일반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이며, 즉 그러한 정보는 진정한 '새로 앎'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사용될 경우 의외성 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송재목의 주장이 온당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예문(15)~(22)에 '-네'뿐만 아니라 '-구나'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와 '-구나' 모두 의외성 표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 송재목(2015:139~140)에서는 아래의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켰다.

(23) 가. 일기예보대로 오늘은 춥네.
나. 소문대로 맛있는 집이네.
다. 봐, 벌써 도망가고 없네. 내가 말했잖아.
라. 역시 배탈이 났네.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탈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하지.
((23)은 송재목 2015:139~140)

송재목(2015)에 의하면 (23가)와 (23나)에서 '-네'가 사용된 문장의 명제는

17) 이 예문의 '-다니'가 결합되는 서술어 앞에 '?'를 표시한 이유는 정문이 되는 맥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자가 "난 내일만 출근하면 3일 동알 쉴 수 있어"라고 상대방이 한 말을 들고 그 발화내용에 대한 의외성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다니'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조건문이 화자의 인지 결과물이 아니라 선행발화를 옮겨 다시 반복한 것일 뿐이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화자가 이미 일기예보나 소문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화자가 '-네'를 사용한 것은 발화 시점에서 직접 증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한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23다)와 (23라)의 후행 발화에서 쓰인 '-잖-', '-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네'에 선행하는 명제의 사태는 화자가 이미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은 화자에게 새롭거나 예측하지 못한 정보가 아니며, 놀라운 정보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본고는 송재목(2015)에서 제시한 의외성 테스트를 활용하여 '-구나'와 '-다니'에 적용해 본 결과, '-구나'는 여과되었는데 '-다니'만이 테스트에 통과한 것을 보일 수 있다.

(24) 가. 석양 듣던 대로 너무 {멋지구나, *멋지다니}! 해가 점점 수평선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는구나, *되다니}. 재료는 한정돼 있어서 그렇지.
다. 이번 올림픽대회에서 예상대로 한국팀이 {이겼구나, *이겼다니}!

(24)에 의존명사와 조사로 통용되는 '대로'가 쓰인 부사어를 삽입해 보면 화자가 발화 이전에 지각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혹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배경 지식에 기대어 상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구나'는 자연스러운데 비해, '-다니'는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나'가 전달하는 정보가 화자에게 예기치 못했거나, 놀라운 정보이어야 할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다니'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명제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4나)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명제에도 '-다니'가 사용되면 부자연스럽다. 이는 명제 자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구나'와 '-다니'의 사용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5) 가. 역시 남자는 {남자구나, *남자라니}.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대놓고 쳐다봐.
나. 어허~ 과연 실력이 {대단하구나, *대단하다니}! 명불허전이다.
다. 거봐, {틀렸네, ?틀렸구나, *틀렸다니}.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부사 '역시'와 '과연'이 쓰인 (25가), (25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화전부터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이미 내면화된 지식, 짐작되거나 예상되는 일이 발화 시점에서 확인되었을 경우에 '-구나'는 표현 가능한데 '-다니'는 부적절하다. 특히 (25가)에서 '-구나'는 그에 선행하는 항진명제(tautology)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항진명제로 실현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담화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지식, 고정관념(stereotype) 또는 화청자 간에 서로 공유된 정보의 대상이다.[18] '-구나'가 항진명제에 통합하여 실제 발화에서 잘 사용되는 것은 '-구나'가 표현하는 정보가 '새로 앎'일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다. (25다)는 어떤 일이 화자 본인이 말한 것처럼 되었음을 확인하며 쓰이는 감탄사 '거봐'가 삽입된 예이다. 그런데 이때 수용성의 정도는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구나'가 쓰이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며 '-다니'의 수용성은 더 떨어진다.

아래의 담화 관용구와 같이 쓰이는 발화를 통해 좀더 살펴보자.

(26) 가.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일어나는구나}. 말도 안 돼.
나. 그렇게 어렵다는 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했다니, ?합격했구나}. 그럴 리가.
다. 주름이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다니, ?사라지는구나}. 이럴 수가!

(26)에서는 화자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정보를 새로 알게 되었음을 표현할 때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와 같은 관용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미처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다니'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데 반해, '-구나'를 취하면 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 활용된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유과정을 겪었거나 추론하여 도출한 결과를 새로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이미 화자에게 알려진, 내면화된 지식이 발화 시점에서 입증되어 확인되었을 때에 '-다니'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

18) 예를 들면 어떤 화자가 "역시 김연아는 김연아구나"라고 발화했을 때 화청자 간에 김연아가 누구인지,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선수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러한 발화는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항진명제의 담화적 특성에 관련한 논의로는 진관초(2015)를 참고할 수 있다.

19) 그러나 포괄적 의미에서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 '선행 지식에 대한 발화 현장의 재확인', '뒤늦은 깨달음'(deferred realization)은 '사후의 해석'(post-factum interpretation)으로 귀속될 수 있다. '사후의 해석'은 어떤 사태에 대한 지각이 발화 이전에 일어났지만 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요컨대, 의외성 범주가 원형(Prototype Theory)으로 다루어질 때 '-다니'는 의외성 범주의 원형에 가깝거나 전형적인 구성원(typical example)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4. 의외성 표지의 수사의문문의 수행

'-다니'가 '반문'(反問)의 의미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다(박재연 2000, 한길 2005, 박나리 2013). '-다니'가 이끄는 반문은 청자에게 묻거나 청자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기보다는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문문과는 거리가 있다.

(27) A: 지선인 이민 갈 건가봐.
B: 아니,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던 애가 유학도 아니고 이민을 가다니? 말도 안 돼. (박재연 2000: 188)

(28) A: 아무도 안 가지고 가는 우산, 그냥 버릴까?
B: 버리다니? 네가 가져가.

(27)~(28)은 '-다니'가 쓰인 문장에서 반문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27)에서 화자 B는 축자적 의미를 묻는다기보다는 화자 A의 발화에 대한 불신적 태도를 표현하는데, (28) 역시 화자 B가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혀진다.[20] 본고에서는 '-다니'가 수행하는 반문의 쓰임을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으로 보아 이를 '-다니'가 지닌 의외성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절에서는 의외성과 수사의문문의 상관성을 논의하고 '-다니'는 '-네'와 '-구나'와 같이 한국어 의외성 표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발화 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흔히 비예측성과 놀라움을 수반한다. 물론 범언어적으로 '사후의 해석'은 증거성 표지에 의해 실현되는 사례가 많으나 (Aikhenvald 2004, 2012)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어떤 표지가 '사후의 해석'을 나타낸다고 하여 의외성 표지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20) 이 용법에 대해서는 한길(2005)에서 '-다니'의 반어법으로 다루고 있다. 곧, 선행 발화가 긍정이면 긍정의 형식을 통해 내용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선행 발화가 부정이면 부정의 형식을 통해 내용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고 '-다니'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였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왜 흔히 수사의문문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정보'라는 의외성의 핵심 속성을 상기시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박재연(2005:106~108)에서 지적되었듯이, 신정보(이 논의의 용어로는 '새로 앎')는 화자의 지식 체계에 확고하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반면에 의문문은 화자의 모름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신정보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겹치는 상관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였다. 즉, 지식 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정보는 수정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청자에게 전달하면서도 맥락에 따라서는 청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의문문의 의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범언어적인 자료를 살펴볼 때도 타당한 진술이 된다. Aikhenvald(2004:249)에서는 의문문에 쓰인 증거성 표지가 놀라움의 의외성을 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값(rhetorical value)을 갖는 일이 종종 있다고 언급하였다. Aikhenvald(2012)에서는 !Xun어(북코이산어족), Magar어, 칸토니스(광동어) 등 의외성 표지를 가지는 언어의 수사의문문 용법을 진일보하여 제시하였다. 요컨대 신정보 혹은 놀라움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의문문 형식으로 쓰이면 수사의문문 효과를 산출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다니'의 수사의문문 용법은 의외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 후보인 '-네', '-구나'가 의문문에 쓰인 사례를 살펴보고 '-다니'를 이들과 비교해보자.

(29) 가. *철수가 학교에 가네, 안 가네?
나. *청소를 다 해 놨구나, 안 해 놨구나?
다. *지선이가 결혼하다니? 안 하다니?
라. 철수가 학교에 가니? 안 가니?

(30) 가. *철수는 언제 학교에 가네?
나. *청소를 언제 다 해 놨구나?
다. *지선이가 언제 결혼하다니?
라. 철수가 언제 학교에 가니?

예문(29)는 '-네', '-구나' 그리고 '-다니'가 선택의문문에 쓰일 수 없는 것을, (30)은 의외성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의문사를 포함한 설명의문문에 출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네', '-구나'가 선택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 출현 불가능함에 대해서는 박재연(2005)와 조용준(2016)에서 이들 어미가 '새로 앎'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곧, 설명의문문의 의문사는 화자의 지식 중 사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선택의문문은 명제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화자의 모름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초보적인 판단인 '새로 앎'을 나타내는 '-네' 또는 '-구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증 방법을 (29다)와 (30다)의 '-다니'에 적용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다니'에도 '앎'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니'가 (29라), (30라)의 '-니'와 같이 진정한 의문형 종결어미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면, 설명의문문과 선택의문문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니'와 의문사와의 공기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래 (31)에서처럼 의문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31) 가. 올 겨울은 왜 이렇게 춥다니?
나. 요새 무슨 약속이 이렇게 많다니?
다.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박나리 2013: 66)

(31)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와 공기하는 의문사 외에 '이렇게', '그런' 등 직시소(deixis)의 사용이다. 여기에 쓰인 직시소는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새로 알게 된 사태의 높은 정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있던 기준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1)의 의문사는 화자의 모름을 표현하거나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기보다는 화자가 해당 사실에 대한 자신의 놀라움이나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화용적으로 볼 때 (31)의 발화가 비아냥거리거나 불평을 토로하는 맥락에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강현화・황미연 2009) '-다니'와 공기하는 의문사는 수사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 의외성 표지와 보고 증거의 유연성(有緣性)

범언어적으로 볼 때 의외성 표지는 간접 증거성 표지와 공히 실현되는 경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유형론적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인용 구성에서 융합 과정을 통해 문법화된 '-다니'가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azard(1999), DeLancey(2001, 2012), Aikhenvald(2004, 2012)에서 지적했듯이 언어 보편적으로 의외성은 간접 증거성과 표현되거나 간접 증거성으로부터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였다.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접 증거에는 추론 증거와 보고 증거가 포함되는데 많은 경우에 2개의 항 이상을 가진 증거성 체계에는 추론 증거가 의외성을 나타내는 보편성이 관찰되었으나 보고 증거성 표지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 또한 일부 존재한다(Aikhenvald 2004:195, 210). 이러한 사실은 중국계 방언에서 보고 증거성 표지가 의외성 표지로 발전해 간다는 문법화 현상이 상당수 관찰된다는 데서도 확인될 수 있다. Chang(1998)에서는 대만 민남어(臺灣閩南語)의 講(kong, 말하다)은 인용표지이면서, 증거성 표지, 상반된 기대 표지(counter-expectation markers)의 기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Matthews(1998)은 칸토니스의 증거성과 의외성에 관련된 최초의 연구로, 칸토니스의 문말어기사(文末語氣詞) '喎'(wo3)는 '놀라움', '주목될 만함'(noteworthiness)을 나타내는 의외성 표지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증거성 표지로서의 '喎'(wo5)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喎'는 話(waa6, 말하다)와 '啊'(o)가 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칸토니스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21)]

王健(2013)에서는 대만 민남어, 칸토니스, 상하이 방언을 포함한 중국 남부 지역 8개 방언들의 의외성 표지를 고찰하였는데 이들 방언에서는 많은 의외성 표지들을 인용구성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용구성→인용(보고 증거성)표지→의외성표지"의 문법화 과정을 겪어 왔다고 귀납적으로 제시하였다.

---

21) 다른 언어의 사례로 Travis(2006)에서 논의된 콜롬비아 스페인어(Colombian Spanish)의 문법화된 보고 증거성 표지 *dizque*를 들 수 있다. *dizque*는 인용동사 *decir*와 보문자 *que*에서 발달된 형태로서, 보고된 발화와 전문(hearsay)을 부호화하는 순수 증거성 표지의 기능으로부터 간접 정보에 관련된 함축적 의미로 인하여 화자의 기대에 반대되는 비의도적, 비통제적 행동을 표시하는데 쓰이면서 최종적으로 '의심'(dubitative)을 나타내는 양태적 표지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어의 '-다니'를 비롯한 이들 문법화된 형태를 통해 보고된 발화의 본질 자체에 관련된 보편적인 인지적 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32) 가. 明仔講給我罵及欲死 (명이가 나를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다니!)
나. 柳丁就甛 e講 (오렌지가 이렇게 달다니!) (王健 2013:114~117, 한국어 번역은 필자)

(32)는 대만 민남어의 인용동사 講이 쓰인 예이다. SVO 구조를 가진 대만 민남어의 인용구성에서는 (32가)와 같이 인용동사 講이 원발화자와 인용내용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2나)에서처럼 문장 말에 위치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32가)와 (32나)의 講은 인용의 기능이 잘 발휘되어 있지는 않고, 신정보로 인한 화자의 놀라움, 감탄을 나타내고 있다.

대만 민남어의 kong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쓰임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 대만에서 사용되는 중국어에서도 범용 인용동사인 說(말하다)은 의외성 표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3) 說他會不收錢幫我們的忙? 鬼才相信
(그가 돈을 받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니/다고? 귀신만 믿을 말이네.)
(34) A: 他昨天把垃圾丟在你家門口 (그가 어제 쓰레기를 네 집 앞에 버리고 갔어.)
B: 說有這種人啦 (이런 인간이 있다니!)

대만 중국어의 예문 (33)과 (34)는 說을 문장 맨 앞에 두고 사용한 것이다. (33)에서는 화자가 발화 이전 혹은 발화 시점에 들은 말을 반문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인 것이며, (34)에서 화자 B는 A의 말을 들었음에도 그 발화를 반복하지 않고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의외적인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다. 위와 같은 說의 용례는 보고 증거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서 의외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니'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보고 증거성 표지를 의외성 표지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일차적인 동기부여는 어떤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할 때 화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역시 의외성과 보고 증거성 표지가 공유하는 의미적 자질이다. 또한 아래의 (35)와 같이 Aikhenvald(2004, 2012)에서 제시된 간접 증거성 표지가 흔히 의외성 의미를 산출하는 의미적인 경로를 상기해 보면 한국어 인용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가 인용 구성에서 문법화 과정을 겪어 의외성 표지로 발전해 가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35) 화자의 직접적인 정보 결여(Lack of firsthand information) → 화자의 비참여성 및 비통제성(speaker's non-participation and lack of control) →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새로운 지식(unprepared mind and new knowledge) → 의외성 해석(mirative reading)

4. 결론

본 연구는 의외성(mirativity)의 관점에서 인용 융합형 어미 '-다니'가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외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의외성 표지는 '비전형적인 발화를 위한 유표적인 실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해석'된다. 또한 의외성에 관한 범주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신정보'(새로 앎)와 '구정보'(이미 앎)라는 대립을 구성하는 내면화 범주가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의외성 연구가 '신정보'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놀라움'을 비롯해 의외성을 나타내는 여러 속성 값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속성 값을 대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다루기보다는 여러 개의 의미적 특성들로 구성된 하나의 원형(prototype)으로 다루었다.

'-다니'에서 보이는 의외성의 언어유형론적 특징을 5가지 제시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세화되지 않은 증거성인데, 의외성은 새로운 정보 또는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해 줄 뿐, 그 이외에 해당 정보의 출처, 즉 화자가 획득한 정보가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묻지 않는다. '-다니'는 보고 증거나 직접 증거를 두루 표시한다는 점에서 증거성을 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은 아니며 의외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증거성 표지와의 공기 제약이라는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구나'와 '-네', 그리고 '-다니'를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 후보로 인정할 때, 이들 어미는 증거성 표지와 공기하는 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니'는 직접 증거와 공기할 수 있으나 추론 증거와는 공기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니'가 지닌 의외성의 의미에 '부정'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파악하였다.

셋째, '-다니'는 추론 증거성 표지와 공기하기 어려운 이유를 유형론적으로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유사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긴 하나 통사・의미론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부사어와 담화표지 등의 호응제약을 살핀 결과, '-다니'는 의외성 범주의 원형에 가깝거나 전형적인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넷째, 의외성 표지가 수사의문문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니'가 쓰인 수사의문문을 본고에서는 '-다니'의 의외성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어 의외성 표지 후보인 '-네', '-구나'가 의문사와는 공기하지 않는 데 반해 '-다니'는 의문사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니'와 함께 쓰인 의문사는 수사적인 것으로, 진정한 의문문으로 성립할 수는 없다.

다섯째, 의외성 표지와 보고 증거의 유연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범언어적으로 볼 때 의외성 표지는 간접 증거성 표지와 공히 실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용 구성에서 융합 과정을 통해 문법화된 '-다니'가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본고에서는 중국어계 방언의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본고는 의외성에 관한 국어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와 달리 '-다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것을 의외성 관점과 접속시킨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외성에 대해 화용론적, 텍스트적 측면을 아울러 광범위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 이것은 후속 연구의 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강현화, 황미연(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24. 한말연구학회, 5-31.

김경애(2002), "증거표지와 정보의 출원", 「論文集」33, 안성산업대학교, 51-58.

김수태(2005), 「마침법 씨끝의 융합과 그 한계」, 박이정.

박나리(2013), "'-다니'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 연구- 담화화용정보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51, 이중언어학회, 45-80.

박나리(2015), "대체(alternative)표현과의 비교대조에 근거한 문법화된 '-다니'의 한국어교육문법 기술", 「이중언어학」60, 87-123.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語學硏究」4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01-118.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태학사.
박재연(2013),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66, 국어학회, 79-107.
박재연(2014), “한국어 종결어미 ‘-구나’의 의미론”, 「한국어 의미학」43, 한국어의미학회, 219-245.
박재연(2015), “한국어 어미 결합에서 나타나는 비합성적 의미 해석”, 「언어와 정보 사회」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15-250.
박진호(2011), “한국어(韓國語)에서 증거성(證據性)이나 의외성(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언어와 정보 사회」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송재목(2014), “한국어 ‘증거성’ 종결어미 ‘-네’: 정경숙(2007, 2012)에 대한 대답”,「언어」39(4), 한국언어학회, 819~850.
송재목(2015),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기능”, 「국어학」76, 국어학회, 123~159.
王 健(2013), “一些南方方言中來自言說動詞的意外範疇標記”, 「方言」2013(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111-119.
이재성(2014), “혼잣말 종결어미 ‘-구나’와 ‘-네’의 의미 차이 연구”, 「문법 교육」21, 한국문법교육학회, 191-216.
이종희(2004),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임지룡(2016), “해석 작용의 언어 층위별 양상과 의미 특성 - 어휘층위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40, 한국중원언어학회, 285-318.
장경희(1985), 「현대국어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정경숙(2012),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 : 증거성 및 의외성과 관련해서”, 「언어」37-4, 한국언어학회, 995-1016.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용준(2016), “한국어의 의외성 범주의 실현과 그 양상”, 「한말연구」40, 251-278.
조용준, 하지희(2016), “한국어 의외성 표지 ‘-구나′, ‘-네′, ‘-다′의 사회언어적 변이 연구”,「사회언어학」24:1, 한국사회언어학회, 241-269.
진관초(2015), “한국어 조건문 항진명제에 대한 재고찰”, 「언어사실과 관점」3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67-207.
채숙희(2016), “한국어의 전달 증거성”, 「한국어 의미학」50, 한국어의미학회, 69-98.
한길(2004), 「현대 우리말의 마침씨끝 연구」, 역락.
한길(2005), 「현대 우리말의 반어법 연구」, 역락.
허경행(2010), 「한국어 복합종결어미」, 박문사.
홍택규(2008), “증거성과 동사범주의 주관화”,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28, 한국러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시아문학회, 155-191.

Aikhenvald, A. Y.(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ikhenvald, A. Y.(2012), "The essence of mirativity", *Linguistic Typology* 16(3), 435~486.

Akatsuka, Noriko(1985), "Conditionals and the epistemic scale", *Language* 61, 625-639.

Chang, Miao-hsia(1998), "The discourse functions of Taiwanese kong in relation to its grammaticalization", In Huang, Shuanfan (Ed.), Selected Papers from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guagesin Taiwan. The Crane Publishing Co., 111-128.

DeLancey, S.(1997), "Mirativity: The Grammatical Marking of Unexpected Information", *Linguistic Typology* 1, 33-52.

DeLancey, S.(2001),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3, 369-382.

DeLancey, S.(2012), "Still mirativity after all these years", *Linguistic Typology* 16(3), 529~264.

Dickinson, C.(2000), "Mirativity in Tsafiki", *Studies in Language* 24, 379~422.

Hengeveld, K. & Olbertz, H.(2012), "Didn't you know? Mirativity does exist!", *Linguistic Typology* 16(3), 487-503.

Hill, N.(2012), "'Mirativity' does not exist: hdug in 'Lhasa' Tibetan and other suspects", *Linguistic Typology* 16(3), 389~433.

Ko, Kyounghee[고경희](1989), "The integrated/new knowledge markers in Korean". Eugene, OR: University of Oregon MA thesis.

Kwon, Iksoo[권익수](2010), I Guess Korean Has Some More Mirative Markers: -Napo- and -Nmoyang-, Presented at the 2010 annual LSA meeting, Baltimore, Maryland.

Lazard, G.(1999), "Mirativity, evidentiality, mediativity, or other?", *Linguistic Typology* 3, 91~109.

Lee, Ho Sang[이효상](1985), Consciously-known but unassimilated information: A pragmatic analysis of the epistemic modal -kun in Korean. In Proceedings ofthe First Pacific Linguistics Conference, 183-210, Eugene: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Oregon.

Matthews, S.(1998), "Evidentiality and mirativity in Cantonese: wo5, wo4, wo3!", In The Six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July 14-16, 1998, Academia Sinica, 325-334. Taipei: Academia Sinica.

Peterson, T.(2010), "Examining the mirative and non-literal uses of evidentials", I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

T. Peterson & U. Sauerland (Ed.), *Evidence from evidentiality*, Vol. 28, Vancouver: UBCWPL, 129-159.

Peterson, T.(2013), "Rethinking Mirativity The Expression and Implication of Surprise", http://semanticsarchive.net/Archive/2FkYTg4O/Rethinking_Mirativity.pdf(30/10/2016)

Strauss, S.(2005), "Cognitive Realization markers in Korean: A discourse-pragmatic study of the sentence-ending particles -kwun, -ney and - tela", *Language Sciences* 27, 437~480.

Travis, Catherine(2006), "Dizque: A Colombian evidentiality strategy", *Linguistics* 44. 1269-1297.

Watters, David E.(2002), *A grammar of Kham*. Cambridge: CUP.

진관초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국어국문학과
전자 우편: korangism@naver.com

원고 접수일: 2016. 11. 30.
원고 수정일: 2016. 12. 14.
게재 확정일: 2016. 12. 19.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19 12:54(KST)